

2017년도 중국정세평가 보고서 (최종 보고)
: 2017년도 한중 경제 협력 평가와 전망

I. 서언

II. 2017년 분야별 한·중 경제협력 평가

1. 한·중 무역 협력 현황과 평가
2. 한·중 투자협력 현황과 평가
3. 기타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III. 2017년 한·중 경제협력 현안 평가

1. 사드 국면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위축
2. 한·중 FTA와 한중 경제협력 평가
3. 한·중 정상회담과 경제 분야 성과 평가

IV. 2018년 한·중 경제협력 환경 평가와 전망

1. 한·중 경제협력 환경 평가
2. 한·중 경제협력 전망

I. 서언

한중 수교 25주년 이후 한중 경제협력은 성장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 왔다. 1992년 양국 간 수교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경제협력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첫 번째 조정을 거쳤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경제협력이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두 번째 조정 과정을 겪었다. 2015년 말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양국 간 경제협력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2017년의 위기는 과거와 달리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에 의해 경제협력이 타격받게 되는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를 경험한 한 해이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중국의 경제 제제가 이루어진 관광, 문화 분야의 교류가 대폭 위축되고, 상호 투자가 부분적인 영향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역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기반으로 안정적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인 경제 제제 조치로 중국 요우키 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분야의 대중국 대폭 감소하고, 중국에 진출한 유통 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 무역에 있어서는 양국관계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및 무역 회복에 힘입어 과거 2년간의 감소세를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상대국의 무역파트너로서의 위상은 낮아진 한 해 이다. 셋째, 직접투자에 있어서는 심리적 불안감과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정책이 겹치면서 상호 투자를 위축시켰으나, 하반기 이후 안정을 회복해 가고 있다. 넷째, 위안화와 원화를 이용한 무역결제, 원-위안화 직거래, 상호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한중 통화 스와프 등 금융과 통화 분야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된 정부간 협력 채널의 단절로 한중 FTA 후속 조치 등 정부 간 협력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에는 양자 관계가 개선되고, 글로벌 환경 역시 개선되면서 이전의 정상적인 협력 관계를 회복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12월 14일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2018년은 세계경제가 3%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경제도 수출과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 중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8년에 한중 경제협력은 경제외적 갈등 요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무역, 투자, 정부 협력, 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안정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2018년에도 한중 교역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며, 양국 관계 악화로 지연되었던 투자 사업들이 재개되면 상호 투자 역시 회복되어 갈 것이며, 상호 인적교류도 점차 회복되고, 정부 간 협력 채널도 재가동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2018년 한중 경제협력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경제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위기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영향, 중미 통상마찰 확대에 따른 영향, 북한 요소

에 따른 양자 관계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II. 2017년 분야별 한·중 경제협력 평가

1. 한·중 무역 협력 현황과 평가

가. 2017년 한중 무역 동향

2017년 1~10월 중 한중 교역 규모는 1,9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하였고, 이중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1,143억 달러로 동 13.4%, 수입은 800억 달러로 동 12.8% 증가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한중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1위 교역대상국으로 한국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4%를 차지하였고, 한국의 1위 수출대상국으로서 전체 수출의 24.1%를, 한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서 전체 수입의 20.4%를 차지하였다.

표 1. 한중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 년도 | 한중 교역 규모 | | | | | | 무역수지 | | 중국 비중(%) ¹⁾ | | |
|------|----------|-------|-------|-------|-----|-------|------|------------------|------------------------|------|------|
| | 교역 | | 수출 | | 수입 | | 금액 | 비율 ²⁾ | 교역 | 수출 | 수입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 | | |
| 1992 | 64 | 43.6 | 27 | 164.7 | 37 | 8.3 | -11 | -16.8 | 4.0 | 3.5 | 4.6 |
| 1993 | 91 | 42.3 | 52 | 94.1 | 39 | 5.5 | 12 | 13.5 | 5.5 | 6.3 | 4.7 |
| 1994 | 117 | 28.5 | 62 | 20.4 | 55 | 39.0 | 7 | 6.3 | 5.9 | 6.5 | 5.3 |
| 1995 | 165 | 41.8 | 91 | 47.4 | 74 | 35.5 | 17 | 10.5 | 6.4 | 7.3 | 5.5 |
| 1996 | 199 | 20.4 | 114 | 24.4 | 85 | 15.4 | 28 | 14.3 | 7.1 | 8.8 | 5.7 |
| 1997 | 237 | 18.9 | 136 | 19.3 | 101 | 18.5 | 35 | 14.6 | 8.4 | 10.0 | 7.0 |
| 1998 | 184 | -22.2 | 119 | -12.0 | 65 | -35.9 | 55 | 29.6 | 8.2 | 9.0 | 7.0 |
| 1999 | 226 | 22.4 | 137 | 14.6 | 89 | 36.7 | 48 | 21.4 | 8.6 | 9.5 | 7.4 |
| 2000 | 313 | 38.6 | 185 | 34.9 | 128 | 44.3 | 57 | 18.1 | 9.4 | 10.7 | 8.0 |
| 2001 | 315 | 0.8 | 182 | -1.4 | 133 | 3.9 | 49 | 15.5 | 10.8 | 12.1 | 9.4 |
| 2002 | 412 | 30.7 | 238 | 30.6 | 174 | 30.8 | 64 | 15.4 | 13.1 | 14.6 | 11.4 |
| 2003 | 570 | 38.6 | 351 | 47.8 | 219 | 25.9 | 132 | 23.2 | 15.3 | 18.1 | 12.3 |
| 2004 | 793 | 39.2 | 498 | 41.7 | 296 | 35.0 | 202 | 25.4 | 16.6 | 19.6 | 13.2 |
| 2005 | 1,006 | 26.7 | 619 | 24.4 | 386 | 30.6 | 233 | 23.1 | 18.4 | 21.8 | 14.8 |
| 2006 | 1,180 | 17.4 | 695 | 12.2 | 486 | 25.6 | 209 | 17.7 | 18.6 | 21.3 | 15.7 |
| 2007 | 1,450 | 22.9 | 820 | 18.0 | 630 | 29.8 | 190 | 13.1 | 19.9 | 22.1 | 17.7 |
| 2008 | 1,683 | 16.1 | 914 | 11.5 | 769 | 22.1 | 145 | 8.6 | 19.6 | 21.7 | 17.7 |
| 2009 | 1,409 | -16.3 | 867 | -5.1 | 542 | -29.5 | 325 | 23.0 | 20.5 | 23.9 | 16.8 |
| 2010 | 1,884 | 33.7 | 1,168 | 34.8 | 716 | 31.9 | 453 | 24.0 | 21.1 | 25.1 | 16.8 |
| 2011 | 2,206 | 17.1 | 1,342 | 14.8 | 864 | 20.8 | 478 | 21.6 | 20.4 | 24.2 | 16.5 |
| 2012 | 2,151 | -2.5 | 1,343 | 0.1 | 808 | -6.5 | 535 | 24.9 | 20.2 | 24.5 | 15.5 |
| 2013 | 2,289 | 6.4 | 1,459 | 8.6 | 831 | 2.8 | 628 | 27.4 | 21.3 | 26.1 | 16.1 |
| 2014 | 2,354 | 2.8 | 1,453 | -0.4 | 901 | 8.5 | 552 | 23.5 | 21.4 | 25.4 | 17.1 |
| 2015 | 2,274 | -3.4 | 1,371 | -5.6 | 903 | 0.2 | 469 | 20.6 | 23.6 | 26.0 | 20.7 |
| 2016 | 2,114 | -7.0 | 1,244 | -9.3 | 870 | -3.6 | 375 | 17.7 | 23.4 | 25.1 | 21.4 |

| | | | | | | | | | | | |
|-----------|-------|------|-------|------|-----|------|-----|------|------|------|------|
| 2017.1~10 | 1,942 | 13.2 | 1,143 | 13.4 | 800 | 12.8 | 343 | 17.7 | 22.4 | 24.1 | 20.4 |
|-----------|-------|------|-------|------|-----|------|-----|------|------|------|------|

주: 1) 한국의 교역, 수출,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2) 무역수지/교역액 비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나. 2017년 한중 무역의 변화

2017년 한국의 대중 교역에서는 양국간 교역이 과거 2년간의 감소세를 벗어났으나 △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하락하고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 대중 무역수지 흑자 확대와 흑자비율 하락세가 안정되고 △ 홍콩을 통한 우회수출이 증가하고 △ 소비재의 대중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첫째, 한중 교역이 2년간의 정체에서 벗어나 증가세로 전환됨으로써 한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교역액은 지난 2년간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벗어나 2017년 1~10월 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대중국 수출도 지난 3년간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었고, 대중국 수입도 2016년의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가공단계별로는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은 대폭 줄어든 반면, 1차상품과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은 대폭 회복되었다. 2017년 1~10월 중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되었던 자본재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1%의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2년간 감소세가 지속되었던 중간재 대중국 수출도 20.0%가 증가하였고, 2016년에 감소세를 보였던 일차상품의 대중국 수출도 18.0%가 증가한 반면, 그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던 소비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가공단계별 대중국 수출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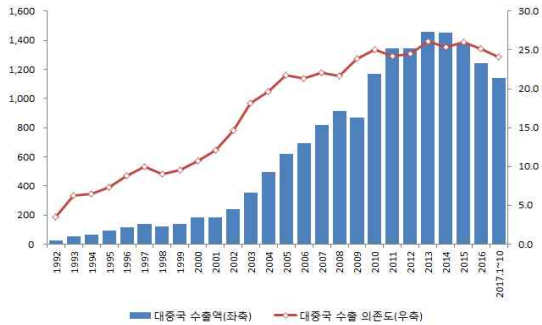


자료: CEIC

둘째, 2017년 대중국 수출 증가율(13.4%)이 대세계 수출 증가율(18.5%)을 하회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하락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15년 26.0%를 정점으로 하여 2016년에 25.1%로 2017.1~10월 중에는 24.1%로 낮아졌다. 가공단계별로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살펴보면 일차상품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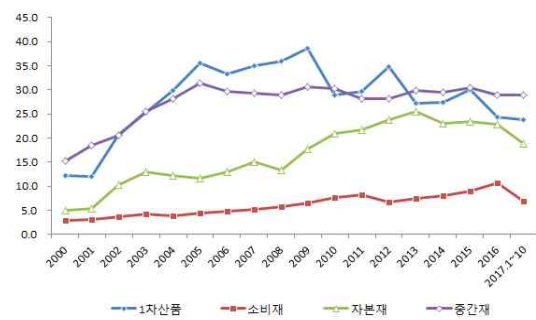
년 30%에서 2017년에는 23.8%로, 소비재의 경우 같은 기간에 9.0%에서 6.9%로, 자본재는 23.5%에서 18.8%로, 중간재는 30.5%에서 28.9%로 각각 하락하였다.

그림 2. 대중국 수출과 중국 의존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3. 가공단계별 중국 수출 의존도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셋째,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 수출 시장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은 제고되었다. 2017년 1~10월 중 한국은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여전히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0.0%에서 9.6%로 하락하였다. 반면 중국 수출시장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진 바, 중국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자료: 중국해관, CEIC

넷째, 2013년을 정점으로 과거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되었던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흑자비율도 전년 수준에서 안정되었다. 2017년 1~10월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343억 달러¹⁾로 전년 동기 대비 15.0%가 증가하였고, 2013년의 27.4%를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었던 흑자비율은 2016년과 동일한 17.7%를 유지

1)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5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였으며, 적자 비율도 2016년 25.8%에서 26.0%로 소폭 상승함.

하였다.

가공단계별로는 한국은 중국과 소비재 교역에서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자본재 교역에서 흑자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중간재 교역에서 흑자가 확대되었다. 1차 상품 교역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의 대중국 적자 규모가 2011년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본재 교역에서 흑자규모는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2017년 1~10월 중 대중국 무역 흑자규모를 살펴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93.4억 달러 확대된 반면에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34.8억 달러, 자동차부품은 19.1억 달러, 컴퓨터는 15.5억 달러가 축소되었다.

그림 5. 대중국 무역수지와 흑자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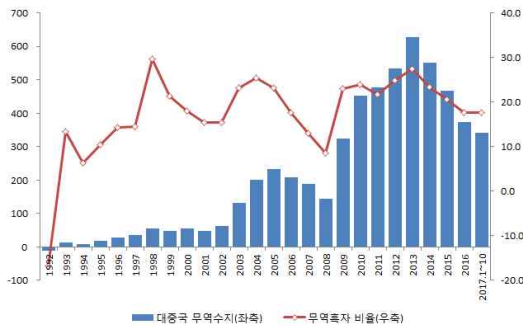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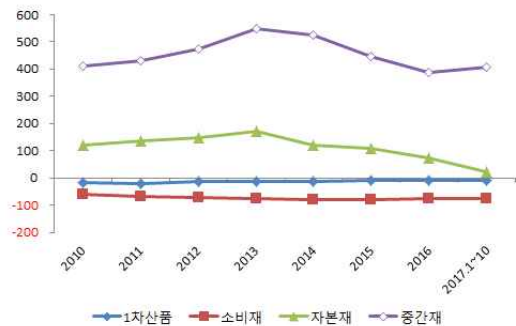


그림 6. 가공단계별 대중국 무역수지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섯째, 수출 대상지역으로서 연해지역의 비중이 낮아지고, 서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연해 지역이 차지한 비중은 2016년 85.8%에서 2017년 1~10월 중에는 84.8%로 하락한 반면, 한국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서부 지역이 차지한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5%에서 5.8%로 높아졌다. 연해지역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이 컸던 환발해만 지역과 산동성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경시에 대한 수출이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하북성과 산동성에 대한 수출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표 2. 한국의 중국 권역별 수출

| 지역 | 수출액(억 달러) | | 증감률(%) | | 비중 (%) | |
|------------------|-----------|-----------|--------|-----------|--------|-----------|
| | 2016 | 2017.1~10 | 2016 | 2017.1~10 | 2016 | 2017.1~10 |
| 동북삼성 | 51.8 | 46.8 | 1.2 | 10.5 | 3.3 | 3.3 |
| 연 해 | 1,362.8 | 1,206.7 | -9.6 | 9.9 | 85.8 | 84.8 |
| *환발해(북경, 천진, 허북) | 160.8 | 114.6 | -19.1 | -13.4 | 10.1 | 8.1 |
| *산동성 | 159.6 | 122.6 | -17.2 | -6.8 | 10.1 | 8.6 |
| *화남(광둥, 복건, 해남) | 442.9 | 385.1 | 2.3 | 11.2 | 27.9 | 27.1 |

| | | | | | | |
|-----------------|-------|-------|-------|------|------|------|
| *화동(상해, 강소, 절강) | 599.4 | 584.4 | -12.2 | 19.8 | 37.8 | 41.1 |
| 중 부 | 102.0 | 87.6 | -17.4 | 6.6 | 6.4 | 6.2 |
| 서 부 | 71.1 | 81.9 | 16.7 | 47.4 | 4.5 | 5.8 |

자료: 한국무역협회

여섯째, 한국의 홍콩에 대한 수출이 2015~2017년의 3년 간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를 유지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의 대한국 경제제재 이후 한국기업들이 한중 관계 경색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자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2014~2016년에도 홍콩을 통한 대중국 우회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 4/4분기 이후 홍콩을 통한 대중국 우회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금년 1~9월 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7%가 증가하였다.

표 3. 홍콩을 통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 연도 | 한국→홍콩→중국 | | 중국→홍콩→한국 | |
|----------|----------|--------|----------|--------|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2012 | 14,334 | - | 4,341 | - |
| 2013 | 15,820 | 10.4 | 4,708 | 8.4 |
| 2014 | 18,195 | 15.0 | 4,360 | -7.4 |
| 2015 | 19,490 | 7.1 | 4,023 | -7.7 |
| 2016 | 22,124 | 13.5 | 4,105 | 2.0 |
| 2017.1~9 | 19,198 | 30.7 | 3,149 | 4.7 |

자료: 홍콩정청통계, CEIC

2. 한·중 투자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동향

2017년 9월말 현재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6,735건으로 전체 해외투자의 37.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액은 582.5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15.1%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한국 대중국 투자는 사드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위축되면서 대폭 감소하였다. 2017년 1~9월 중 한국의 대중국 투자 건수는 4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가 감소하였고, 투자액은 17억 9,800만 달러로 동 17.1%가 감소하였다. 이중 제조업 분야의 대중국 투자는 11억 8,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가 감소하였고, 비제조업 분야의 대중국 투자는 6억 6,100만 달러로 동 13.4%가 감소하였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7년 1~9월 중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25억 7,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6%가 감소하여, 그 감소 폭이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액 감소 폭(-3.2%)을 대폭 상회하였다.²⁾

2) 중국 상무부의 가오핑(高峰) 대변인은 2017년 11월 말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63,000여 개

표 4. 한국의 대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 연도 | 한국의 대중국 투자 ¹⁾ (백만 달러) | | 중국 비중 ²⁾ (%) | |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³⁾ (백만 달러) | | 중국의 외국인 투자 ⁴⁾ (백만 달러) | |
|------------------|-------------------------------------|--------|----------------------------|------|--|-------|-------------------------------------|---------------------|
| | 투자건수 | 투자액 | 투자 건수 | 투자액 | 신고액 | 투자액 | 한국 | 비중(%) ⁵⁾ |
| 1991년말 | 105 | 71 | 4.9 | 1.4 | 4 | 1 | n.a. | n.a. |
| 1992 | 174 | 138 | 32.7 | 10.0 | 1 | 3 | n.a. | n.a. |
| 1993 | 388 | 291 | 54.3 | 19.5 | 7 | 2 | n.a. | n.a. |
| 1994 | 850 | 676 | 55.9 | 27.7 | 6 | 2 | n.a. | n.a. |
| 1995 | 760 | 923 | 55.0 | 27.7 | 11 | 7 | 1,043 | 2.8 |
| 1996 | 750 | 1,041 | 49.1 | 21.6 | 6 | 4 | 1,358 | 3.3 |
| 1997 | 647 | 814 | 46.4 | 20.0 | 7 | 3 | 2,142 | 4.7 |
| 1998 | 279 | 690 | 43.0 | 14.3 | 8 | 3 | 1,803 | 4.0 |
| 1999 | 472 | 354 | 41.2 | 10.3 | 27 | 13 | 1,275 | 3.2 |
| 2000 | 798 | 792 | 36.5 | 14.7 | 76 | 57 | 1,490 | 3.7 |
| 2001 | 1,078 | 681 | 47.6 | 12.6 | 70 | 47 | 2,152 | 4.6 |
| 2002 | 1,433 | 1,144 | 54.9 | 27.8 | 248 | 81 | 2,721 | 5.2 |
| 2003 | 1,729 | 1,917 | 58.6 | 39.2 | 49 | 184 | 4,489 | 8.4 |
| 2004 | 2,231 | 2,499 | 56.2 | 36.3 | 1,165 | 647 | 6,248 | 10.3 |
| 2005 | 2,366 | 2,916 | 50.1 | 39.4 | 68 | 606 | 5,168 | 7.1 |
| 2006 | 2,389 | 3,524 | 43.4 | 29.4 | 38 | 27 | 3,895 | 5.4 |
| 2007 | 2,214 | 5,689 | 36.5 | 24.6 | 384 | 47 | 3,678 | 4.4 |
| 2008 | 1,365 | 3,935 | 31.7 | 16.3 | 336 | 149 | 3,135 | 2.9 |
| 2009 | 769 | 2,485 | 28.7 | 11.9 | 160 | 28 | 2,700 | 2.9 |
| 2010 | 918 | 3,665 | 30.0 | 14.8 | 414 | 96 | 2,692 | 2.3 |
| 2011 | 860 | 3,547 | 29.2 | 12.1 | 651 | 101 | 2,551 | 2.1 |
| 2012 | 741 | 4,051 | 26.6 | 14.0 | 727 | 188 | 3,038 | 2.5 |
| 2013 | 835 | 5,166 | 27.5 | 16.9 | 481 | 229 | 3,054 | 2.5 |
| 2014 | 723 | 3,183 | 23.7 | 11.3 | 1,189 | 314 | 3,966 | 3.1 |
| 2015 | 734 | 2,958 | 23.0 | 9.6 | 1,978 | 1,774 | 4,034 | 3.0 |
| 2016 | 695 | 3,301 | 21.3 | 9.4 | 2,049 | 480 | 4,751 | 3.5 |
| 2017.1~9 | 432 | 1,798 | 16.6 | 5.5 | 608 | 130 | 2,571 | 2.8 |
| 누계 ⁶⁾ | 26,735 | 58,249 | 37.0 | 15.1 | 10,767 | 5,221 | 71,6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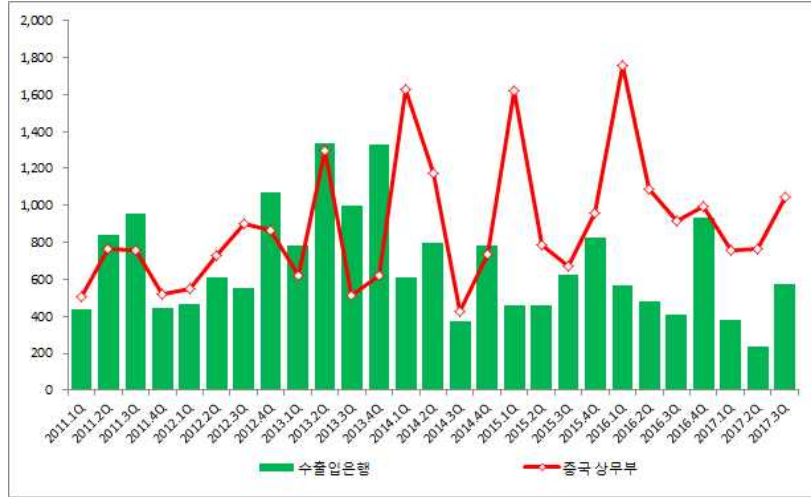
주: 1)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기준 투자 실행액, 2) 한국의 대세계 투자 중 중국의 비중, 3)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계 기준 4) 중국 상무부 통계 기준 5) 비중은 중국의 외국인투자 중 한국의 비중, 6) 2017년 9월말 현재 누계 기준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국 상무부, CEIC

특히 2017년에 들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 투자사업의 1단계 투자가 완료되고, 제조업 분야의 해외투자 대상지역이 베트남 등으로 이전되는 가운데, 사드에 따른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4분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며, 총 투자액은 716억 달러라고 밝힘.

그림 7. 한국의 분기별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CE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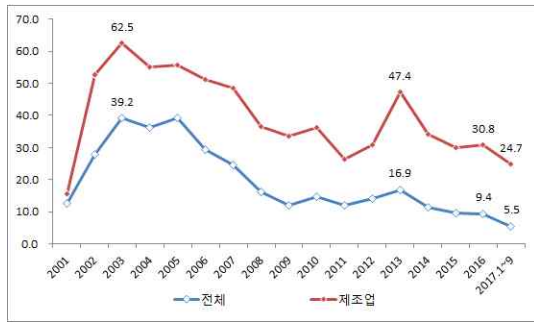
나. 2017년 대중국 투자의 변화

2017년에는 한국의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 하락하고, 중소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위축되었으며,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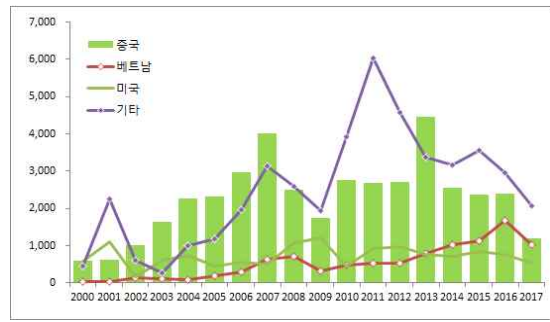
첫째, 2017년에도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한국의 해외 투자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9.4%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9.4%로 2017년 1~9월 중에는 5.5%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해외투자가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제조업 분야 투자와 미국에 대한 서비스 분야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서비스 분야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중국에 집중되던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베트남 등으로 투자 지역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는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9월 중에는 한국의 전반적인 제조업 해외투자 둔화로 인해 중국에 대한 제조업 분야의 투자는 11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가 감소하였고, 베트남에 대한 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10억 300만 달러로 동 19.2%가 감소하였다.

그림 8. 한국의 해외투자 중 중국 비중
(단위: %)

그림 9. 한국의 제조업 해외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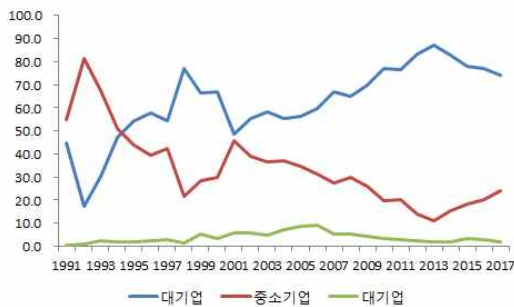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둘째, 중소기업의 해외 투자 대상지역으로 중국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이후 대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본격화 되면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0.2%에서 2017년 1~9월 중에도 20.4%로 소폭 상승한 반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0%에서 74.1%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임금 인상, 가공무역에 대한 우대 축소, 환경규제 강화 등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외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4년 3분기 이후 중소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전환된 이후 베트남이 최대 투자 대상지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림 10. 기업 규모별 대중국 투자 비중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11.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셋째, 2017년 산동성과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환발해만 지역과 화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산동성에 대한 자동차 부품 업체의 투자 증가로 산동성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4%가 증가하였으며, 섬서성에 대한 반도체 관련 부품 업체의 투자로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0.0%가 증가하면서 대중국 투자에서 서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8.1%에

서 2017년 1~9월 중에는 17.5%로 대폭 상승하였다. 반면 베이징에 대한 투자는 한중 관계 악화로 자동차 관련 투자가 위축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가 감소하였고,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지역인 강소성에 대한 투자가 감소(-22.0%)하면서 화동 지역에 대한 투자도 동 19.3%가 감소하였다.

표 5. 중국의 지역별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 지역 | 투자 규모(백만 달러) | | | 증가율(%) | | 비중(%) | |
|---------|--------------|-------|----------|--------|----------|-------|----------|
| | 2015 | 2016 | 2017.1~9 | 2016 | 2017.1~9 | 2016 | 2017.1~9 |
| 전 국 | 2,958 | 3,301 | 1,798 | 11.6 | -17.1 | 100.0 | 100.0 |
| 동북삼성 | 112 | 104 | 49 | -7.0 | -40.0 | 3.2 | 2.7 |
| 연 해 | 2,293 | 2,747 | 1,381 | 19.8 | -21.8 | 83.2 | 76.8 |
| * 환발해지역 | 584 | 700 | 365 | 19.9 | -35.8 | 21.2 | 20.3 |
| * 산 동 성 | 391 | 314 | 199 | -19.9 | 13.4 | 9.5 | 11.1 |
| * 화남지역 | 220 | 483 | 70 | 119.5 | -27.3 | 14.6 | 3.9 |
| * 화동지역 | 1,098 | 1,251 | 747 | 13.9 | -19.3 | 37.9 | 41.5 |
| 중 부 | 171 | 113 | 19 | -33.9 | -79.7 | 3.4 | 1.0 |
| 서 부 | 220 | 267 | 315 | 21.2 | 90.0 | 8.1 | 17.5 |
| 미 확인 | 161 | 70 | 35 | -56.7 | -46.5 | 2.1 | 1.9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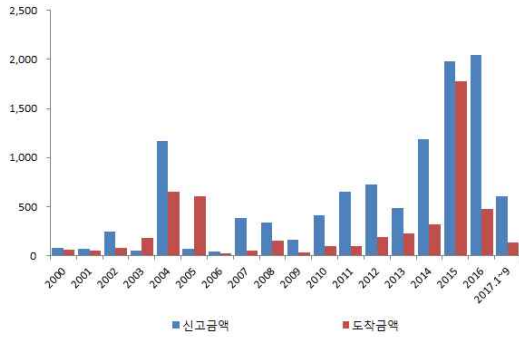
다.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중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사드에 따른 심리적 위축, 중국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³⁾ 등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7년 1~9월 중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신고 건수는 58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5%가 감소하였고, 투자 신고액은 6억 800여만 달러로 동 63.4%가 감소하였고, 도착액도 1억 3,000여만 달러로 동 53.6%가 감소하였다.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감소는 사드에 따른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기업이 투자 실행을 연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하면서 해외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⁴⁾ 반면, 사드에 따른 한중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대한국 투자가 증가한 것은 양국 관계의 경색으로 중국기업이 홍콩을 통한 우회 투자를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1~9월 중 홍콩의 대한국 투자의 신고액은 14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하였으나, 도착액은 9억 8000만 달러로 동 19.2%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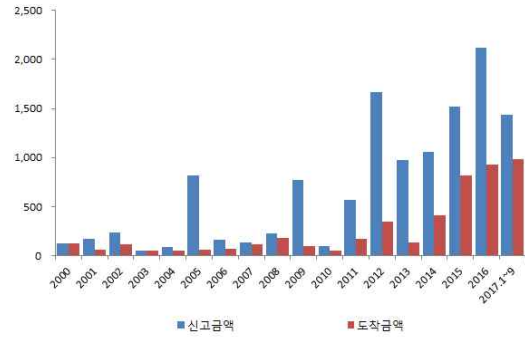
그림 12.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그림 13. 홍콩의 대한국 직접투자 추이

3) 중국정부는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 이하로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초 중국 기업들의 해외 M&A, 비트코인 거래 등 자본의 해외 유출 채널을 적극적으로 통제함.

4) 2017년 1~9월 중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7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9%가 감소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9월말 현재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서비스업이 69억 1,500만 달러로 전체의 6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35억 8,600만 달러로 33.3%를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20억 6,500만 달러로 전체의 19.2%를, 금융 및 보험업이 15억 6,400만 달러로 14.5%를, 비즈니스 서비스업이 12억 1,500만 달러로 11.3%를, 도소매 및 유통업이 8억 7,400만 달러로 8.1%를, 음식 및 숙박업이 6억 3,200만 달러로 5.9%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운송기계 업종이 10억 9,400만 달러로 전체의 10.2%를, 그중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종이 9억 3,700만 달러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 업종이 8억 5,200만 달러로 7.9%를, 전기전자 업종이 6억 5,800만 달러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가 급증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중국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 중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25.5%를 차지하였고, 부동산 및 임대업이 19.9%, 문화와 오락 서비스업이 5.3%를 차지하였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분야에 대한 투자는 위축된 반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의 특수 목적용 기계 분야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표 6. 중국의 대한국 투자 업종 분포(2017년 9월말 현재 신고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산업/업종 | 누계 (2017년 9월 말 현재) | | | 신고금액 | | |
|-------------|--------------------|--------|-------|----------|----------|--------|
| | 신고건수 | 신고금액 | 비중(%) | 2016.1~9 | 2017.1~9 | 증감률(%) |
| 전체 | 10,806 | 10,767 | 100.0 | 1,663 | 608 | -63.4 |
| 농·축·수산·광업 계 | 132 | 81 | 0.8 | 2 | 7 | 332.9 |
| 제조업 계 | 1,183 | 3,586 | 33.3 | 705 | 189 | -73.2 |
| 화학 | 192 | 852 | 7.9 | 110 | 119 | 7.6 |
| 금속 | 115 | 313 | 2.9 | 114 | 2 | -98.4 |
| 기계·장비 | 98 | 362 | 3.4 | 31 | 5 | -84.6 |
| 전기·전자 | 243 | 658 | 6.1 | 69 | 18 | -74.0 |
| * 반도체 | 76 | 482 | 4.5 | 4 | 1 | -77.8 |
| 운송용기계 | 104 | 1,094 | 10.2 | 286 | 3 | -98.9 |
| * 자동차 및 부품 | 18 | 937 | 8.7 | 280 | 1 | -99.8 |

| | | | | | | |
|-------------|-------|-------|------|-----|-----|-------|
| 기타 제조업 | 126 | 149 | 1.4 | 81 | 41 | -49.5 |
| 서비스업 계 | 9,384 | 6,915 | 64.2 | 903 | 402 | -55.5 |
| 유통업 | 6,731 | 874 | 8.1 | 75 | 91 | 21.1 |
| * 무역업 | 5,020 | 444 | 4.1 | 42 | 15 | -63.6 |
| 음식·숙박 | 1,141 | 632 | 5.9 | 118 | 15 | -87.4 |
| 운수·창고(물류) | 407 | 127 | 1.2 | 1 | 2 | 101.7 |
| 금융·보험 | 34 | 1,564 | 14.5 | 281 | 2 | -99.4 |
| * 금융업 | 32 | 580 | 5.4 | 281 | 2 | -99.4 |
| 부동산·임대 | 408 | 2,065 | 19.2 | 108 | 40 | -63.0 |
| 비즈니스서비스업 | 380 | 1,215 | 11.3 | 197 | 151 | -23.6 |
| * IT서비스업 | 161 | 222 | 2.1 | 25 | 119 | 375.5 |
| 문화·오락 | 125 | 384 | 3.6 | 111 | 101 | -9.0 |
| * 문화·방송업 | 61 | 184 | 1.7 | 96 | 1 | -99.1 |
| 전기·가스·수도·건설 | 107 | 185 | 1.7 | 54 | 10 | -80.6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기타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한중 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고, 양국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상승한 반면, 자본과 외환시장에서 협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2017년 10월 13일 양국 중앙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3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사드로 경색되었던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되었다. 한국과 중국은 2008년 12월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불안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1,800억 위안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였다. 2013년 1월에는 통화 스와프 자금을 한·중 무역 결제에서 위안화 외화 대출로 활용하여 양국의 무역 활성화와 원-위안화 무역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중 통화 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무역 결제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다. 2011년 10월에 한·중 통화 스와프 규모는 3,600억 위안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의 한·중 정상 회담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의 만기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통화 스와프의 만기가 2017년 10월까지 연장되었다. 2017년 10월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지난 10일 만료된 통화 스와프 협정의 만기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높은 스와프 금리 등으로 통화 스와프 활용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7. 중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 현황 (2017년 7월 30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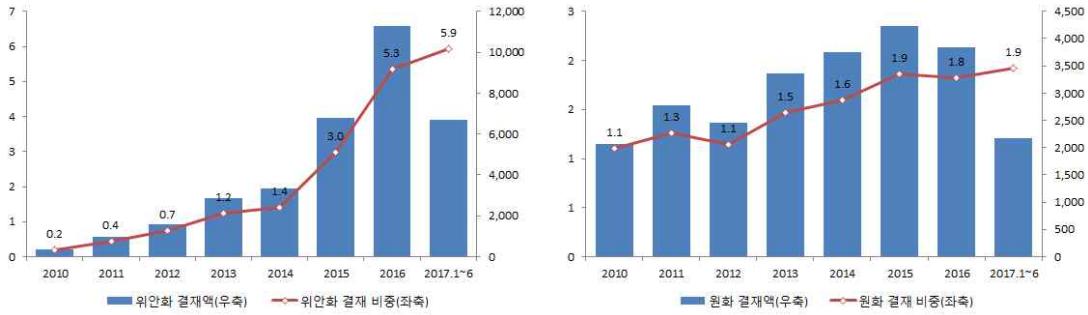
| 순위 | 국가 | 최초 협정체결 | 금액 (위안화) | 기간 | 비고(연장기일) |
|----|-------|------------|----------|----|------------------------|
| 1 | 홍콩 | 2009.01.20 | 4,000 | 3년 | 2014.11.22 |
| 2 | 말레이시아 | 2009.02.08 | 1,800 | 3년 | 2015.04.17 |
| 3 | 백러시아 | 2009.03.11 | 70 | 3년 | 2015.05.10 |
| 4 | 인도네시아 | 2009.03.23 | 1,000 | 3년 | 2013.10.01, <u>실효</u> |
| 5 | 아르헨티나 | 2009.04.02 | 700 | 3년 | 2014.07.18, 2017.07.17 |

| | | | | | |
|-----|----------|-----------------|-------|----|-------------------------|
| 6 | 한국 | 2009.04.20 | 3,600 | 3년 | 2014.10.11., 2017.10.13 |
| 7 | 아이슬랜드 | 2010.06.09 | 35 | 3년 | 2013.09.11, 2016.12.21 |
| 8 | 싱가폴 | 2010.07.23 | 3,000 | 3년 | 2013.03.07, 2016.03.07 |
| 9 | 뉴질랜드 | 2011.04.18 | 250 | 3년 | 2014.04.25, 2017.5.17 |
| 10 | 우즈베키스탄 | 2011.04.19 | 7 | 3년 | 실효 |
| 11 | 몽고 | 2011.05.06 | 150 | 3년 | 2014.08.21, 2017.7.6 |
| 12 | 카자흐스탄 | 2011.06.13 | 70 | 3년 | 2014.12.14 |
| 13 | 태국 | 2011.12.22 | 700 | 3년 | 2014.12.22 |
| 14 | 파키스탄 | 2011.12.23 | 100 | 3년 | 2014.12.23 |
| 15 | 아랍에미레이트 | 2012.01.17 | 350 | 3년 | 2015.12.14 |
| 16 | 터키 | 2012.02.21 | 120 | 3년 | 2015.09.26 |
| 17 | 호주 | 2012.03.22 | 2,000 | 3년 | 2015.03.30 |
| 18 | 우크라이나 | 2012.06.26 | 150 | 3년 | 2015.05.15 |
| 19 | 브라질 | 2013.03.26 | 1,900 | 3년 | 실효 |
| 20 | 영국 | 2013.06.22 | 3,500 | 3년 | 2015.10.20 |
| 21 | 헝가리 | 2013.09.09 | 100 | 3년 | 2016.09.12 |
| 22 | 알바니아 | 2013.09.12 | 20 | 3년 | 실효 |
| 23 | 유럽중앙은행 | 2013.10.08 | 3,500 | 3년 | 2016.09.27 |
| 24 | 스위스 | 2014.07.21 | 1,500 | 3년 | 2017.07.21 |
| 25 | 스리랑카 | 2014.09.16 | 100 | 3년 | |
| 26 | 러시아 | 2014.10.13 | 1,500 | 3년 | |
| 27 | 카타르 | 2014.11.03 | 350 | 3년 | |
| 28 | 캐나다 | 2014.11.08 | 2,000 | 3년 | |
| 29 | 수리남 | 2015.03.18 | 10 | 3년 | |
| 30 | 아르메니아 | 2015.03.25 | 10 | 3년 | |
| 31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5.04.10 | 300 | 3년 | |
| 32 | 칠레 | 2015.05.25 | 220 | 3년 | |
| 33 | 타지키스탄 | 2015.09.03 | 30 | 3년 | |
| 34 | 모로코 | 2016.05.11 | 100 | 3년 | |
| 35 | 세르비아 | 2016.06.16 | 15 | 3년 | |
| 36 | 이집트 | 2016.12.06 | 180 | | |
| 전 체 | | 33,437(실효2,927) | | | |

자료: 중국인민은행

둘째, 한중 무역에서 위안화와 원화 결제 비중이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중 한중 교역 중 위안화 결제액은 6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4%가 증가하였으며,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상반기 5.1%에서 2017년 상반기에는 5.9%로 상승하였다. 원화에 의한 무역 결제액도 21.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하였고, 원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도 1.8%에서 1.9%로 소폭 상승하였다.

그림 14. 한중 무역 중 위안화 결제액 그림 15. 한중 무역 중 원화 결제 규모



자료: 한국은행

셋째, 2017년에도 한·중 자본시장에 대한 상호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말 현재 중국 자본의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액은 11조 3,780억 원으로 2016년 말에 비해 30.8%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중국 자본이 한국의 외국인 보유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현재 1.81%에서 2017년 10월 말에는 1.74%로 소폭 하락하였다.

표 8. 외국인 상장 주식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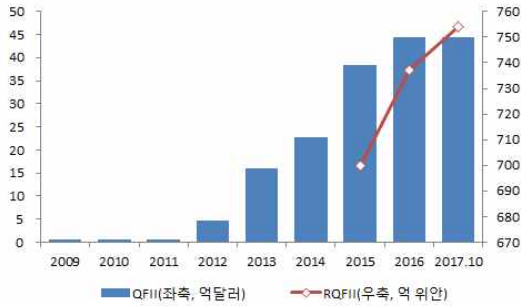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 2015년 말 | 2016년 말 | 2017년 10월 말 | 증감률(%) |
|----------|---------|---------|-------------|---------|
| 중국인 보유액 | 9,337 | 8,701 | 11,378 | 30.8 |
| 외국인 보유액 | 421,024 | 481,566 | 651,202 | 35.2 |
| 중국 비중(%) | 2.21 | 1.81 | 1.74 | -0.07%p |

자료: 한국금융감독원

② 한국 자본의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2014년 7월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800억 위안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2015년 10월에는 RQFII 한도가 1,200억 위안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2017년 10월말 현재 한국 금융기관이 허가받은 RQFII 쿼터 배정액은 754억 위안으로 중국 전체 RQFII 배정액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홍콩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2017년 10월 말 현재 한국계 투자은행이 중국 외환관리국으로부터 배정 받은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 쿼터는 16건에 44.48억 달러로 중국 전체 QFII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9월 한국산업은행이 1억 4,000만 달러의 QFII 쿼터를 배정 받은 이후 추가적인 배정은 없었다.

그림 16. 한국의 QFII와 RQFII 쿼터(기말 기준) 그림 17. 중국 자본의 한국 주식 보유 추이



자료: 중국국가외환관리국



자료: 한국증권감독원

넷째, 2017년에도 한국과 중국에서 원-위안화 직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2014년 12월 1일에 한국에 원-위안 직거래시장이 개설되고, 2016년 6월 27일에는 중국 상해 외환거래소에서 원-위안 직거래가 시작되었다. 한국 내 외국환은행 간 2015년에는 24억 7,000만 달러로 당해년도 원-달러 일평균 거래량의 17%에 달하였으나, 2015년 8월 11일에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환율 결정방식 변경 이후 위안화 절하세가 지속되면서 2016년 4/4분기에는 13.8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었으나, 2017년 8월 한국 내 위안화 직거래시장 활성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2017년 3/4분기는 일평균 거래액이 24.4억 달러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상하이 직거래시장에서 원-위안 직거래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여 2017년 1~10월 중 상하이 외환거래시장에서 원-위안 직거래액은 343.71억 위안으로 중국의 전체 외환 직거래액의 0.1%에 불과하였다.

그림 18. 한국 내 1일 평균 원-위안 현물환 거래 (억 달러)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중국 내 원-위안 직거래 규모 (억 위안)



자료: CEIC

Ⅲ. 2017년 한·중 경제협력 현안 분석

1. 사드 국면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위축

가.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한국 경제 제재

중국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안보이익을 침해하고, 지역 내 中·美의 전략적 균형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정경일체의 입장에서 내수시장을 무기화하여 한국에 대해 비공식적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중국은 심리적 효과가 크며 한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자국 산업 경쟁력 육성·보호 정책과 맞물려 시행하거나, 사드와 관련 있는 재중 한국기업을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표적으로 광전중국은 문화·관광 분야에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등은 통관 절차(수입검사 및 검역 강화조치 등) 등에서 암묵적으로 제재를 실행하였다.

표 9.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제재 유형

| 유형 | 경제 제재의 주요 내용 |
|-----------------------|---|
| 정부의 암묵적 지시 | - 요우커(遊客) 방한 제한 |
| 자국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와 연계 | - 전기차 배터리 심사기준 강화, 지연 - 한한령(限韓令) 등 문화 콘텐츠 규제 |
| 한국 업체의 문제와 결부 | - 화장품 수입 규제 강화 - 롯데 사업장에 대한 세무·소방·위생 점검 |
| 지방의 복지부동형 제재 | -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통관 지연 |

따라서 중국 정부는 사드를 이유로 취한 경제보복은 없다고 주장해 왔다. 2017년 3월 중국 상무부 쑤지원 대변인은 “중국이 경제적 보복조치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며 “중국은 WTO의 구성원으로 WTO 규칙 및 관련 승인을 준수하고 있다.” 고 강조하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중국의 제한에 대해 들어본 바 없다.” 는 입장으로 발표하는 등 중국 정부의 대한국 경제 제재를 시종 일관 부인하였다.

나. 사드와 한중 경제 협력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는 양국 인적 교류 감소, 상호 투자의 둔화, 자동차부품 및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둔화로 이어졌다.

① 중국의 대한국 관광규제로 인적 교류가 대폭 축소되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한국행 단체관광객의 20% 감축을 지시하였고, 2017년 1월에는 인천, 제주, 부산행 크루즈선 운항을 축소하는 조치를 발동하였으며, 3월 중순에는 중국인의 대한국 관광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 관광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중국 정부의 비공식적 한국 관광 제한조치로 인해 중국인의 한국 관광 제한 등 사드 갈등으로 인한 인적 교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7년 1~10월 방한 중국인은 357.3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만 명(-49.6%)가 감소하였다. 이중 관광을 목적

으로 방한한 중국인은 263만 명으로 전년 동기(604만 명) 대비 341만 명(-56.4%)이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한국 방문 중국인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55.2%가 감소하였다. 특히 단체 관광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인의 한국 관광이 대폭 감소하였다. 금년 1월부터 3월 1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140만 명으로 전동동기대비 3.7%가 증가하였으나, 단체관광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 5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214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2.4%가 감소하였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중 외교 장관 회담이후 베이징과 산둥성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한국 관광이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워 금년 연간 중국 관광객은 지난해에 비해 396만 명이 감소한 411만 명으로 전년대비 49.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1,956달러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17년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도 최대 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림 20. 방한 중국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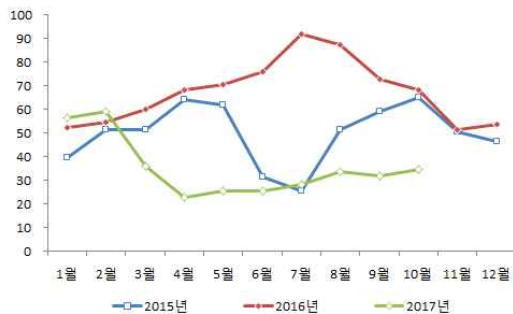


그림 21. 한국의 대중국 관광 수입



자료: 한국관광공사

② 중국의 반한 감정으로 인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도 우리 제품의 대중 수출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의 대중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1억 달러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나, 현지 진출 국내업체의 생산 및 판매는 사드 문제 발생 이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10월 중 한국산 브랜드 승용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82.45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39.5%가 감소하였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내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명시적인 불매운동은 없었으나, 한국브랜드 자동차의 판매는 2017년 2월 성주 사드부지 제공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2014년 9%까지 올라갔던 한국기업의 중국 승용차 시장의 점유율도 3% 수준으로 급격하였다. 한국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가 중국 내에서 감소한 원인은 단순히 사드의 영향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중국 자동차시장 구조의 변화, 중국 로컬 자동차업체의 부상, 일본 브랜드와의 경쟁력 차

이 등 다양한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내 한국산 자동차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자동차 부품의 대중국 수출도 대폭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액은 2015년 이후 3년 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1~10월 중에는 전년 동기 대비 39.5%가 감소하였다.

그림 22. 중국 내 한국산 브랜드 승용차 판매량
(단위: 만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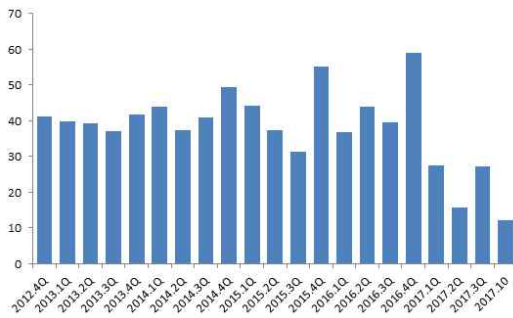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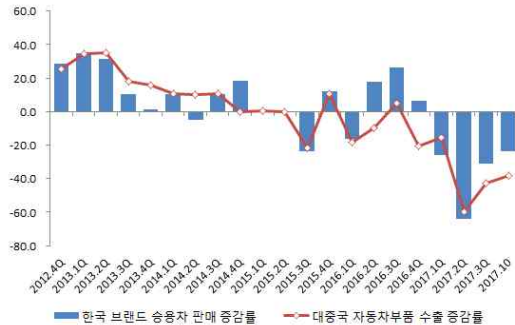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부품 수출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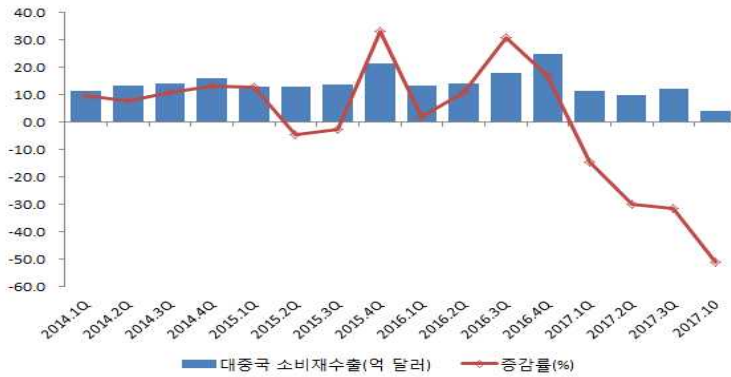
자료: CEIC

③ 사드 관련 중국의 경제제재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해 우리의 대중 수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 대중 수출은 자동차부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대중 수출의 75% 정도가 중간재로 이루어져 있어, 이에 대한 수입규제는 중국기업의 생산이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주요 품목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은 중국기업의 휴대폰, TV 수출에 소요되는 핵심 품목이어서 이에 대한 수입규제는 오히려 중국기업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의 경제제재 조치도 관광이나 한류, 롯데마트 등 중국 내 한국 유통업체 등에 대한 규제 등 서비스 분야에서 우선 적용되었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중FTA의 체결로 수출상품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안전, 건강상의 보호 등을 근거로 통관상의 비관세장벽이 주로 활용되었다. 품목별로는 식품 등 농림수산물과 화장품 등 소비재가 주요 보복조치 대상이다.

따라서 사드 배치로 인한 양국 간 갈등이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의 경우 일부 중국 소비자들 사이 한국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2017년 1~10월 중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다. 특히 2017년 1~10월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중 향수와 화장품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5%, 유아용 기저귀는 동 -41.8%, 유아용 조제식료품은 동 -36.1%가 감소하였다.

그림 24.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자료: CEIC

2. 한·중 FTA와 한·중 경제협력 평가

가. FTA 활용도와 경제적 효과 평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2017년 초까지 3차례에 걸쳐 관세인하가 이루어졌으나 한·중 FTA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양국 간 무역에서 한·중FTA 활용률(FTA 원산지 발급액/FTA 대상 품목의 수출입)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FTA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FTA 활용도는 한국의 전체 FTA 활용률 64%에 비해 매우 낮은 34%에 머물렀다. 반면 대중국 수입에서 활용률은 58%로 전체 평균(7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산 제품의 수입에 있어 한·중FTA 활용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광산물, 농산물의 무역에서 높은 FTA 활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표 10. 한국의 산업별 한·중 FTA 활용률(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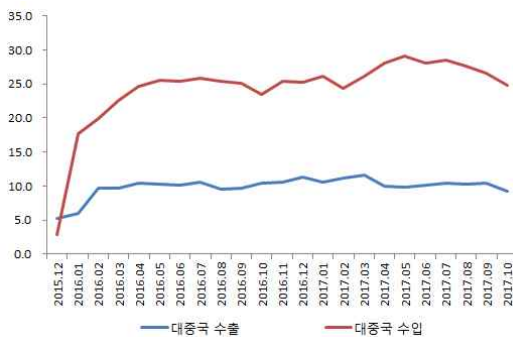
| 산업 | 수출 | | 수입 | |
|--------|------|-------------|------|-------------|
| | 전체 | 중국 | 전체 | 중국 |
| 광산물 | 0.58 | 0.53 | 0.53 | 0.41 |
| 기계류 | 0.73 | 0.28 | 0.69 | 0.50 |
| 농림수산물 | 0.51 | 0.35 | 0.83 | 0.54 |
| 생활용품 | 0.48 | 0.17 | 0.66 | 0.52 |
| 섬유류 | 0.46 | 0.22 | 0.77 | 0.60 |
| 잡제품 | 0.61 | 0.09 | 0.59 | 0.41 |
| 전자전기제품 | 0.51 | 0.15 | 0.57 | 0.50 |

| | | | | |
|--------------|------|-------------|------|------|
| 철강·금속제품 | 0.60 | 0.31 | 0.74 | 0.64 |
|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 | 0.65 | 0.26 | 0.73 | 0.60 |
| 화학공업제품 | 0.60 | 0.49 | 0.76 | 0.74 |
| 합계 | 0.64 | 0.34 | 0.70 | 0.58 |

자료: 한국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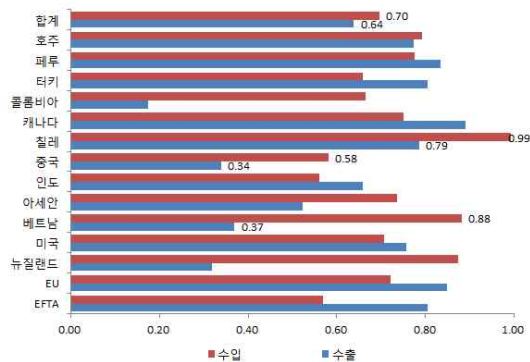
그러나 한중 교역에서 FTA 대상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7년 1~10월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FTA 대상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3%로 2016년(9.95)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한미 FTA의 47.2%, 한-EU FTA의 47.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FTA 대상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로 2016년(23.9%)에 비해 높아졌으나, 한미 FTA의 36.7%, 한-EU FTA의 60.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림 25. 한중 교역 중 한중 FTA 대상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관세청

그림 26. 한국의 FTA 활용도(2016년)



자료: 관세청

둘째, 한중 FTA가 양국의 무역 회복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한중 FTA가 한중 교역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2017년 1~10월 중 한중 FTA 대상품목의 대중국 수출은 118.3억 달러로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액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중 FTA 대상 품목의 대중국 수입액은 215.8억 달러로 한국의 대중국 수입액의 2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중 FTA가 한중 교역 회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1~10월 중 FTA 대상품목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21.5%로 전체 대중국 수출 증가율(13.4%)를 대폭 상회하였으며,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 증가율도 28.9%로 전체 대중국 수입증가율(12.8%)의 두 배를 넘어섰다.

②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FTA 대상 품목 교역에서는 적자를 유지함으로써 한중 무역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2015년까지 한중 FTA 대상품목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흑자 유지하여 왔으나, FTA가 발효된 2016년에는 84.8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고, 2017년 1~10월의 적자 규모도 70.11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39.2%가 증가하였다.

나. 한중 FTA 후속 조치 추진 평가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외하고 한중 FTA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가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① 2017년 1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의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제1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년간 이행평가 △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가 △ 협정 이행 애로사항 △ 양자 통상현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공동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관세·통관·원산지 위원회(1.9), 비관세조치작업반(1.11), 상품위원회(1.12), 서비스·자연인의 이동·투자위원회(1.12), 경제협력위원회(1.12)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1년간 분야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했다.

② 2017년 9월 27일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어 ‘사이버보안’ 규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및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기술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외에 협정에서 규정된 서비스·투자 및 정부조달 분야의 후속 협상,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협력 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③ 한중 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국 통상산업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였던 한중 FTA 2차 협상과 후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중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고, 2018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양해각서」를 통해 그간 침체된 한중 경제협력 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국면전환(모멘텀)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중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동 양해각서에서는 특히 △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 상호 투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호 제공 △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제3국 공동 진출, 한중 투자협력기금 조성 등 기존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도 12월 15일에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 광둥성 주하이 등 3개 지역에 한중 산업원구 설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한중 산업원구 설립에 관한 국무원 회답」을 발표하였다.

3. 한·중 정상회담과 경제분야 성과 평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기간(12월 13~16일) 중 14일 조어대 국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정상회담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담이었다. 특히 금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본 합의와 함께 미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경제 분야에서는 △ 한중 산업단지과 투자 협력기금 등 기존 협력사업의 재개 △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장려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 신분야의 협력과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협력 △ 일대일로 건설 협력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1. 정상회담(12.14) 경제 분야 주요 논의 사항

| 한국 정부 발표 | 중국 외교부 발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 사업을 재개 및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 장려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합의 - △ 미세먼지 공동 저감 △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 교육·과학 협력 △ 신재생에너지 협력 △ 지방 정부 간 협력 증진 -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의 임석 하에 경제무역, 녹색생태산업, 환경, 위생, 농업, 에너지, 동계올림픽 등 영역의 양자 협력 문건 서명을 서명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新)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계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한국이 '일대일로' 건설 참여를 환영하고, '일대일로'와 한국 발전전략과의 연계 추진, 상호 호혜공영의 협력 모델구축을 위해 적극 연구하여 공동발전 실현을 희망함 |

자료: 청와대 및 중국 외교부 사이트 보도 자료 정리.

둘째, 정상회담이 종료된 이후 두 정상의 임석 하에 △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상호교류 및 협력 △ 미세먼지 대응 등에 관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 △ 에너지협력 △ 친환경-생태산업개발 분야 전략적 협력 △ 한중 동물위생·검역 협력 △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 갱신 등 총 7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시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에 「무역구제 협력 확대 양해각서」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외에 바이오 기술, 전자상거래, 에너지 및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흥 산업에서의 협력 및 한중 고위급 기업인 정기 교류 협력채널 구축 등 기관과 기업 간 다수의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 12. 한중 정부 부처 간 체결한 7개 주요 양해각서(MOU)

| MOU |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
|-----|-------|------|

| | | |
|--|---|--|
| <p>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MOU (산업통상자원부-상무부)</p> | <p>-한중 FTA 규정에 따라 양국은 2018년 초 서비스·투자 후속 제1차 협상 개시에 합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한중간 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지향</p> | <p>-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을 통해 우리 기업의 對中 서비스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투자기업의 실질적 보호 강화 도모</p> |
| <p>2018평창 동계올림픽-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MOU*</p> | <p>-양국은 평창올림픽에서 중국 읍서버와 파견 프로그램 운영, 내년 6월 베이징에서 평창 올림픽 경험 설명회 개최 등 지식 전수에 협력하고 문화교류와 협력 강화</p> | <p>- 한·중 동계올림픽 협력을 통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MOU 체결 공개를 통해 중국의 티켓 구매를 유도</p> |
| <p>2018-2022 환경협력계획 MOU (환경부-환경보호부)</p> | <p>-2018년 부터 5년간 대기, 물, 토양·폐기물, 자연환경 분야에서 환경협력계획 수립·협력을 진행(한중 환경협력센터 베이징 설립) -미세먼지 대응 등 양국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계획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마련</p> | <p>- 미세먼지 대응 등 양국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계획 공동 수립을 추진하고 상시 협력채널 마련</p> |
| <p>에너지 협력에 관한 MOU (산업통상자원부-국가에너지국)</p> | <p>-전력망 연결, 천연가스 교역, 에너지신산업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 강화 -한중 정부 간 국장급 에너지 협의 채널 신설 등</p> | <p>-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간 연계 차원에서 '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모멘텀 조성</p> |
| <p>한중 동물위생·검역 협력을 위한 MOU (농림축산식품부-농업부)</p> | <p>-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공동 예방 및 방역에 협력, 양국 국장급 협의체 설치 -구체적으로는 AI 공동 연구와 구제역 백신 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물 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등록절차 간소화, 전문가 교류 등 동물용 의약품 분야까지 협력 확대</p> | <p>- 한·중 간 AI, 구제역 등 초국경적 동물 질병 공동 대응을 포함한 동물위생 및 검역분야에 있어 포괄적 협력을 위한 협정서 체결 동력 확보</p> |
| <p>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MOU (산업통상자원부-공업신식화부)</p> | <p>- 양국간 친환경 산업발전 협력 방안 논의 추진 - 한중간 정부와 관계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교류 협의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협력 이행안(로드맵)을 논의</p> | <p>- 중국의 청정 생산기술, 에너지 효율과절약 기술 시장에 우리기업 수출 및 진출 지원, 관련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창출</p> |
| <p>보건의료 협력 MOU 갱신 (보건복지부-국가위생화계획생육위원회)</p> | <p>- 양국 간 협력분야를 보건의료 정책, 보편적 의료보장(UHC), 헬스케어시스템에서 ICT 활용, 전통의학, 환자 안전, 정신건강, 건강한 노년(healthy ageing), 감염병 및 암 예방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p> | <p>- 양국 간 협력분야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책 경험 공유를 통해 관련 협력 추진 기반 강화</p> |

주: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중국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간 체결

자료: 청와대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thebluehousekr/221163555039>) 등을 바탕으로 정리.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새로운 미래 25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한중 경제협력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3대 원칙으로 △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 경제 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 양국민의 우호정서를

통한 사람중심 협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8대 협력 방안으로 △ 제도적 기반 구축 △ 교역의 질적 성장 도모 △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 에너지 분야 협력 △ 환경 분야 협력 △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3대 원칙과 8대 협력방향 제안에 대해 장가오리 부총리는 한중 경제협력의 내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으로 △ 양국의 발전전략의 연계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의 지속적 확대와 중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에 대한 지원 요청, 5G, 빅데이터 등 신분야 협력 확대 △ 보호주의에 대한 공동 대응 △ 양국의 우호적인 민의를 기초로 한 인문교류 유대 강화 △ 한국과 중국은 아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G20, APEC, 10+3, RCEP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표 13.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한중 경제협력 3대 원칙과 8대 방향

| 8대 협력 방향 | 주요 추진 사업 |
|-----------------------|--|
| 제도적 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FTA 이행 점진, 검역 및 통관 협력, 비관세장벽 해소 협력 등 *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 MOU 체결 * 정부 부처 간 협의 채널, 산업별(반도체, 철강) 민간 협의 채널 가동 |
| 교역의 질적 성장 도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 분야 다양화 및 디지털 무역 확대 * 프리미엄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 협력 확대 * 상호 온라인 플랫폼 입점 확대 |
| 미래 신산업 협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산업 시대의 관심분야에서 협력 확대 * IOT, 드론, 인공지능, 전기차 등 신산업 협력 확대 * 신세대(5G) 통신 운용 협력, 베이징 동계올림픽 지원 |
| 벤처 및 창업 분야 협력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전략과 중국의 만중창신 만중창업 연계 * 벤처투자 공동 기금 조성 |
| 에너지 분야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 *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신기술 개발, 에너지 인프라 건설 협력 * 신에너지 분야 협력 MOU 체결 |
| 환경 분야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생태문명건설,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환경협력 강화 * 미세먼지, 대기정화 및 저감기술 협력, 대기수질폐기물 처리, 청정 생산 공정을 위한 생태 산업단지 조성 협력 강화 |
|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대일로 건설 구상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의 연계 * 제3국 공동 진출 및 제3국 투자기금 조성 * AIIB, NDB를 통한 인프라 건설 참여 |
| 사람 중심의 민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風과 韓流 공유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 상호 많은 유학생(재중 7만 명의 한국 유학생) 보유 → 미래 지도자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강화 |

자료: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 정리

IV. 2018년 한·중 경제협력 환경 평가와 전망

1. 한·중 경제협력 환경 평가

2018년 한중 경제협력 환경은 양자 관계와 글로벌 환경 모두 개선될 것으로 예상

된다. 첫째, 2018년에는 양자 관계가 안정되면서 한중 경제협력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외교부 간의 10월 31일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발표와 12월 14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도 정상회담을 “양국이 상호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의 기초 하에 각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지방과 실무 부처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경제제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8년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새로운 행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 시점까지는 지금과 동일한 형태의 비공식적 제재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2018년에도 중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면서 한중 경제협력 회복을 견인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은 중국이 개혁·개방 전략을 선언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인 동시에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전면적 샤오강 사회 건설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2017년도의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기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 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동산 개혁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부동산 제도 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내년에도 ‘안정 속에 개혁(穩中求進)’ 이라는 정책 운영 기조 아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중립의 통화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진핑 2기를 맞아 개혁정책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과잉생산 해소, 기업부채 감축 등 공급측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부동산 경기도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수출과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6% 중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글로벌 경제 회복 역시 한중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중미간의 통상 마찰 재연 우려는 한중 경제협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세계 경제가 3% 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계 교역이 경제성장률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제 회복은 한중간의 가공무역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지위 부여 문제, 301조 조사 등을 둘러싼 중미 통상 마찰 재발 가능성은 한중 경제 협력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2018년 한중 경제협력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경제 관계의 안정화를 위한 위기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영향, 중미 통상마찰 확대에 따른 영향, 북한 요소에 따른 양자 관계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 한·중 경제협력 전망

2018년에 한중 경제협력은 경제외적 갈등 요인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무역, 투자, 정부 협력, 인적교류 등에서 안정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세계경제와 중국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2018년에도 한중 교역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의 소비와 수출 중심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이 두 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영향으로 급감했던 중국 내 한국산 자동차 판매가 회복되면서 자동차부품 수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산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 한국 소비재에 대한 이미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한국 소비재의 대중국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드 갈등이 한국과 한국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3.2%에 달했고, 한·중 관계 회복 이후에도 한국 제품을 계속 불매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사드를 인지하는 응답자)의 1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양국 관계 악화로 지연되었던 투자 사업들이 재개되면 상호 투자 역시 회복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8년에도 중국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정책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중소기업의 제조업 분야 투자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전환되면서 한중 투자 협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향후 양국의 정부 간 협력 채널이 재가동되면서 양국의 경제 현안에 대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는 “경제 무역 부처간 소통 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 에너지, 보건 등의 분야에서 체결된 MOU의 후속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동시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FTA 투자·서비스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간에 체결한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력 제고 양해각서」에서는 한중 산업단지 조성, 제3국 공동 진출 등 그동안 추진이 중단되었던 협력을 재기하기로 하였다.

넷째, 양국관계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관광을 포함한 인적교류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산둥성과 베이징시를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 규제 완화가 시작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2018년과 2020년을 각각 한국 방문과 중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 직후 산둥성이 단체 관광 허용 방침을 철회하는 등 여전히 불안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